

'26. 8. 28.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· 태

- “야탑역 30명 찌르겠다” 글 올린 20대, 1,484만원 배상판결
 - 8.24 언론은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장갑차·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의 현장 투입을 초래한 20대 남성에게 국가에 1,484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
- 태국, 밤새 폭력 사태 51건...이슬람 반군 소행 가능성
 - 8.24 외신은 태국 남부 지역에서 하룻밤 사이 방화와 폭탄 테러 등 51건의 조직적 폭력 사태로 3명이 다치고, 철도·통신탑 등 시설들이 파손된 것에 대하여 이슬람 무장 반군(BRN)의 배후 가능성을 보도
 - ※ 외신은 해당 지역이 과거 말레이 술탄국의 일부였다가 태국에 합병된 곳으로,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반군들로 인해 오랫동안 무력 충돌이 이어져 왔다고 부언
- 청주서 테러위협 및 흉기 배회한 40대, 징역 1년 6개월 실행
 - 8.25 언론은 청주지법이 산부인과 대기실에 테러 위협을 암시하는 허위 쪽지를 남기고,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40대에게 공중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

유 럽

- 獨, 베를린 숲속서 러시아의 암살공작 의심되는 권총 발견
 - ↳ 독일 연방헌법수호청(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) : 독일 국내정보기관
 - 8.21 언론은 독일 BfV가 베를린 근교 숲속에서 실탄이 장전된 권총 2자루가 은닉된 시설을 발견했으며, 러시아 정보기관이 망명 반정부 인사 등을 암살하기 위해 마련한 비밀 무기고로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

○ 스웨덴, 남부지역 고교서 마체테 칼부림으로 학생 등 4명 사상

- 8.21 언론은 스웨덴 남부 브리넬 고등학교에서 18세 남성 용의자가 마체테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, 3명이 다쳤으며, 경찰이 용의자의 다리에 총을 쏘 검거, 사건배후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

※ 스웨덴에서는 2022년 말뫼 고교 교사 2명 피살, 2025년 오레브 총격으로 10명 사망 등 교육시설 내 무차별 폭력·총격이 잇따르고 있다고 부언

미 주

○ 美, 헤즈볼라 자금 운반망 제재 및 테러단체 재지정

- 8.21 외신은 미국 재무부가 헤즈볼라의 자금 조달·제재 회피를 도운 현금 운반망 관련자 10명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, 이란 쿠드스군의 지휘를 받는다고 판단되는 헤즈볼라를 대리 테러단체로 재지정했다고 보도

※ 美 「트럼프」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전례 없는 경제 작전을 시사하면서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

○ 美, 의사당 폭파 모의한 30대 女 체포

- 8.21 외신은 미 뉴욕주에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에 충성을 맹세하고 주 의사당 폭파를 모의한 30대 여성이 IS 협력자로 위장한 비밀 정보원들에게 체포되었다고 보도

※ 뉴욕주지사인 「캐시 호컬」은 용의자와 IS 직원과의 실제 접촉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으로, 즉각적 위협은 없으나 의사당 등의 경비를 강화했다 부언

○ 美, '시리아'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, 「HTS」 테러단체 지정 해제

- 8.25 언론은 미국 「트럼프 행정부」가 '시리아'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공식 철회하고, 현 시리아 집권 세력인 「HTS*」에 대한 국제 테러단체 지정도 함께 해제하며 시리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보도

*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(Hayat Tahrir al-Sham): 현 시리아 대통령 「아메드 알샤라」가 수장으로 시리아 내전 당시 알카에다 계열에서 출발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

역사 속 테러사건

프랑스 고속열차內 총격 테러

- '15. 8. 21 저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동 중이던 고속 열차 안에서 테러범 「엘 카자니(25)」가 총기를 난사하여 승객 3명 부상
 - 당시 테러범은 AK-47소총 外 권총 · 휘발유병도 소지하고 있었으나, 총기 난사 직후 승객들의 제압으로 추가 피해는 경미
- 佛 검찰은 테러범이 체포 직후 '무장강도'라고 주장했음에도 △범행 직전 지하디스트 선전 동영상 시청 △이슬람 극단주의자와 연락 △SNS上 ISIS 지지 사실 등을 확인하고 테러혐의로 기소
- 현지 언론은 同人이 '14년 시리아에서 ISIS 군사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, 과거 마약 거래 혐의로 3차례 체포된 바 있어 '생겐조약(국경자유통과협정)' 회원국의 요주 인물로 관리되어 왔다고 보도

테러 상식

< 생겐조약(Schengen Acquis) >

- 유럽연합(EU)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으로 가입국은 같은 출입국 관리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자나 여권 없이 자유롭게 다른 국가로 이동이 가능하며, 검문검색을 받지 않고 세관신고도 未 실시
 - * '85년 독일 등 5개국이 룩셈부르크 남부 생겐에서 국경을 개방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선언한 데에서 유래, 現在 26개국 가입
- 국가간 자유로운 통행에 대한 목적 외에도 가입국內에서 발생한 범죄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국의 경찰들이 생겐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범죄자 · 행방불명자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범죄수사의 국경적 제약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고 평가